

합리적 대안 제시, 거부 땀 어떤 투쟁도 불사!

이승호 회장, '임원연수회'에서 대정부활동 기조 밝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5월 3일(화) 레전드호텔(대전 유성 소재)에서 전·현직 임원인수회 및 제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승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FTA로 낙농 시장을 개방하였다면, 이제는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협회는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대화로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으나, 거부 때는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라며 협회의 대정부활동 기조를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 제15대 손정렬 회장을 비롯한 전직 임원, 도지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다. 손정렬 전 회장은 “우리 임원님들, 직원들이 있는 한 낙농육우산업은 영원히 발전할 것이다”라며, “목장 현장에서 농가의 한사람으로 협회 활동을 돕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의 첫 순서인 제2회 이사회에서는 △상시적 협회 내부 운영회의 개최를 통한 활동방안 마

련, △낙발협 논의경과에 따라 협회 내 낙농제도 개혁 추진기구 구성, △회원농가 여론수렴 및 결집을 위한 활동 강화, △他 농민단체, 소비자단체와의 대외협력 및 연대활동 강화, ‘제20대 국회 농정활동 강화’등 협회 운영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제15대 손정렬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협회 임원진 개선에 따라 낙농진흥회 이사에는 문용돈 이사(충남 서산), 감사에는 박헌재 이사(전남 나주)를 추천키로 했다. 분과위원회별로 선임된 이용욱 청년분과위원장, 이명규 여성분과위원장, 유진영 육우분과위원장은 인준을 받았다.

현안토론에서는 제16대 집행부 첫 회의답게 낙농문제 전반에 대한 고견들이 쏟아졌다.

우선 학교우유급식 및 대형유통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업체의 우유 저가 덤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00원짜리 원유가 시장문란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현재 수급문제의 근본원인은 FTA와 정부 방임하에 유업체의 무분별한 쿼터관리에 있는 것인데, 정부와 유업체가 언론을 통해 우유수급 문제의 원인으로 ‘합의의 선물’인 연동제를 지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협회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 문제, 세정수 처리시설 기술 보급과 지원대책 마련, 건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

울러 원유 유통질서 행정명령 해제문제, 낙농헬퍼 국고지원, 가축재해보험 정부지원 확대 및 가입 시 연령제한 완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조사료 수급안정 대책 마련 등 낙농 및 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임원연수회의 마지막 순서는 한국서비스교육원 김춘애 원장이 ‘성공하는 것엔 감동이 있다’라는 주제의 리더십 특강으로, 시종일관 진지하면서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